

작은교회 목회자의 욕망?

21세기 남한에서 작은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식은 교회성장의 신화들이 아니라, ‘또 어느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들이다. 누군가는 주중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작은교회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저 지금의 수준으로 현상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위로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 이들이 참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한대의 교회성장이나 메가처치 신화일까?

한 통계에 의하면, 개척교회 100개의 개척 3년 후 생존율이 2%라고도 한다. 이러한 시대에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 생존’과 ‘존엄’일 것이다. 물론 대다수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생존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생존만이 목표라면 그들은 이미 다른 직업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다. 생존보다 앞서는 근원적 욕구는 목회자로서의 존엄이다.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것, 목회자로서 존중받고 권위를 얻는 것. 이것의 반대편에는 잉여로의 전략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잉여, 즉 목회자나 교회는 이미 차고 넘쳐서 별로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다는 존재에 대한 부정은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긴다. 수많은 작은교회 목회자들은 어쩌면 한주에도 몇 번씩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자문하며 살아갈 것이다. 목회자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생존해가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마저 채워지지 못하는 삭막한 현실조건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와 조건 속에서 복음이 주는 평화와 기쁨을 작은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누리고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작은교회 목회자들이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질문이다. 우리에게 ‘성장이냐, 작은교회냐’ 라는 선택의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 이미 ‘충분히 작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엄과 생존을 지켜갈 수 있을까?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 글은 지역의 작은 경험에 기초한 개인적 글쓰기임을 전제한다. 한 작은교회 목회자의 고민과 실험의 몇 걸음을 공유하고자 한다.

어떤 지역교회가 되어야할까

몇몇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수도권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이웃들은 교회개척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한다며 출발하는 교회의 설립이 그 이웃들에게는 복된 소리도 기쁜 이야기도 아닌가보다. 아마 그들에게는 도서관이나 공영 수영장, 공원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훨씬 기쁜 소식인 것 같다. 이처럼 교회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교회 구성원과 이웃주민의 기대는 엇나가기 십상이다.

나는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교인들의 요청에만 응답하는 교회를 넘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었다. 물론 상가 한 칸을 빌어 사는 겨자씨만한 교회가 지역의 다양한 필요

1) 이 글은 오세욱, “풀뿌리 평화공동체 형성의 걸음”, 생명평화마당 편, 『한국적 작은교회론』(대한기독교서회, 2017)을 수정한 글입니다.

에 응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영역과 작은 교회가 응답할 수 있는 영역의 교집합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된다.

지역의 필요를 다른 말로 하면 ‘공공성’(公共性)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공성이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공(共), 즉 많은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교인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公)은 공공가치의 영역이다. 이는 정의, 평화, 사랑, 민주, 인권, 용서, 화해 등의 영역이며, 복음과 하나님나라의 영역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내 교인만을 넘어서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영역의 확장과 심화에 기여하는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지역교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를 넘어서서 복음의 공공성으로 다가가려는 시도일 것이다.

복음의 공공성, ‘정의로운 평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막1:15)는 예수의 뉴스! 언젠가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소식(눅17:21),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식은 21세기 남한에서 작은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쁨과 소망의 뉴스가 된다. 특별히 그 나라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참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은 삶과 목회의 방향을 제시해준다.(사52:7, 렘 33:15, 롬14:17)

성서에서 정의에 대한 주목은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인간 내면의 의(righteousness)에 대한 사모와 사회적 정의(justice)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나라의 핵심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사9:7; 16:5, 렘 22:3) 그리고 성서에서 평화,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전체적 영역과 통전적 차원을 뜻한다. 따라서 평화는 단지 내면의 평안을 넘어선다.(사9:7; 14:5-7, 미4:4) 이때 평화는 언제나 정의로운 평화이다. 여기서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란 ‘정의로운 전쟁’(just war)과 대구적 형식 표현이 아니라, 정의에 기초한 평화(peace based on justice)를 의미한다.²⁾ 평화는 결코 불의에 대한 침묵이 아니며, 정의를 향한 저항의 걸음으로서의 평화이기도 하다. 동시에 정의의 열매는 평화와 평안과 안전이다.(사32:17; 48:18)

세계교회는 1990년 JPIC 서울 세계대회를 통하여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이 세계교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서울대회는 1960년대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의의 과제에 주목하였다. 빈부격차, 약성부채, 인권유린, 여성차별과 인종차별은 하나님나라 선교에 기여하려는 교회들에게 커다란 과제로 다가옴을 역설하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끊이지 않는 ‘저강도전쟁’과 군비경쟁, 핵무기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강조하였다. 이처럼 평화를 유린하는 폭력의 시대에 교회는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민감하게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사람을 넘어서 지구환경에 대한 파괴로 이어졌다. 열대림 파괴, 종자 멸종, 물 공기 땅 등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교회가 먼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환하는 죄책고백과 다짐을 선언하였다.

2) 장윤재, “정의의 눈으로 보는 생명과 평화-제10차 WCC 부산총회의 주제에 대한 한 신학적 이해”, 2010.

서울대회를 통하여 교회는 위기에 처해있는 세계상황과 더불어 교회의 죄책과 선교적 책임을 공동 인식하였다. 또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과제가 각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깊은 연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 분야에서의 저항과 실천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기여임도 확인하였다. 서울 세계대회를 마친지 10일후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는 “JPIC는 2000년대 에큐메니칼 비전의 핵심”이라고 결론을 내렸다.³⁾

이러한 결론은 2013년 WCC 부산총회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지금 수많은 불의와 폭력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의와 평화의 걸음을 온 세계의 교회들이 간구하고 실천할 것을 선포하는 의미이다.

‘정의 평화 생명’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이자 공동선(common good)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회가 온 인류의 공적 가치와 공동선의 구현에 기여해야 할 선교적 과제가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 교회의 인류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2010년 부활절을 맞아 <생명과 평화를 여는 2010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1973년 한국그리스도인 신앙선언>과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의 맥을 잇는 2010년 생명평화 선언은 “온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놓인 현실 속에서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생명의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였고,⁴⁾ 이 선언은 이후 생명평화마당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교회

정의평화라는 공공의 가치를 믿음과 선교실천의 핵심으로 삼는 그리스도 교회는 단지 사적 관심사를 나누는 친목단체의 성격을 넘어서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임을 인정하는 공공의 가치인 정의 평화를 이천년간 품고 수련하고 실천해온 사회적 집단의 성격을 띤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인류에게 매우 귀중한 유산이고 자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공공성, 그리고 공적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성격과 존재방식을 스스로 인식하고 주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퍼진 교회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오해를 교회 스스로 자초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인사정책을 풍자한 표현인 ‘고소영’(여기서 ‘소’는 소망교회로써, 당해 교회의 인맥이 당시 정권의 고위관료로 집중적으로 진출하였음을 비꼰 표현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 등장한 기독교자유당의 ‘차별과 혐오’에 기초한 정책공약들(반동성애, 반이슬람, 반복 등 이들의 공약은 주로 두려움과 혐오에 기초한 반대와 차별 정서를 한국교회에 확산시켰다),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 등장한 성가대 가운과 통성기도 등은 한국의 교회들이 인류 보편의 공공가치인 정의평화의 걸음을 선택하고 기여하는 집단인지, 혹은 그 반대편에서 불의와 폭력,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단인지를 다수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집단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마 몇몇 초대형교회의 담임목사들이 앞장선 영향이 클 것이다. 2017년 탄핵 이후 대선에서도 이들은 스스로를 ‘범 기독교계’라고 부르면서 탄핵당한 정

3) 연구문서 1,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서울 세계대회 최종문서”, 1990.

4) <생명과 평화를 여는 2010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 2010.

당의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것은 예수의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며 전 세계 교회들의 회개와 신앙고백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동안 이 땅의 정의평화생명에 기여해온 엄청난 수고와 헌신, 그 역사적 결실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있으며, 신앙의 공동체이자 인류 보편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교회를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영리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는 하나님나라의 선교를 철저히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의 행태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맞는 가장 큰 위기이자 작은교회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와 같은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선교실천이나 복음전도를 모두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영리행태로 바라보고 있다. 결국 교회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정의평화생명에 걸림돌이 되는 불의와 폭력, 반생명의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장 루이 라빌(Jean Louis Laville)의 분류에 기초할 때, 제1섹터를 국가 정부, 제2섹터를 기업 시장, 제3섹터를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NGO, NPO)의 영역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⁵⁾ 이때, 제3섹터는 제1섹터의 국가 공권력, 제2섹터인 기업 시장의 영리 추구와 거리를 두면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한다. 제3섹터의 존재명분은 공공성의 확보에 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교회는 명백히 제3섹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장주의 교회들은 제2섹터의 기업처럼 종교시장의 무한경쟁에 뛰어들어 자기권익의 확장에만 앞장서왔다. 그리고 서로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강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과점을 이루며 종교시장을 독점한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이나 지금까지 종교인과세 추진에 대해 보여준 태도들이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교회에 대한 신뢰상실은 교회가 시장의 사익추구 집단과 동일시될 때 발생한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유지창출하기 위하여 제1섹터와 거리낌 없이 손을 잡고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교회사적 평가이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개인윤리적 타락과 더불어 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도 하락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교회들이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시혜적 복지를 실시한다고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다. 대형교회들의 '정의없는 봉사'(diakonia without justice)⁶⁾는 마치 재벌 출연 공익재단의 행태와 유사한 미봉책에 그친다.

목회자는 지역신학자이자 지역인문학자

2012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서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곧 우리사회가 그만큼 불의가 만연한 사회이며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인기는 시민사회의 인문학 관심과 이어져있었다. 하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벤트 성격의 대형 인문학 강좌는 인문학의 고민을 지속하고 삶으로 이어가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다. 인문학이 생명, 사회와 공공 가치에 대한 질문이고 탐색이라면, 이는 단기간에 정답을 얻을 수 없는 차원이며, 정답이라고 쉽사리 제시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질문과 탐구, 그리고 그 과정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하여 현재의 한계를 넘

5) 아달베르트 에베르스·장 루이 라빌, 자활정보센터 역,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 :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나눔의 집, 2008.

6) 장윤재, 위의 글, 2010.

어서는 시도와 실험에 용기를 갖는 일련의 과정이 인문학 공부의 과정이라고 할 때, 이는 삶의 터전을 공유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부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지역운동에 꾸준히 헌신할 수 있는 훈련된 인문학자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벤트성 행사를 넘어서 꾸준한 풀뿌리 공부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주민들과 만나 삶을 나누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풀뿌리 인문학모임들은 우리나라 인문학운동의 미래와 깊이 관련된다. 이러한 실천은 지역의 과제를 발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토의하고 제안하며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건강한 토양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문학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의 작은교회 목회자일 수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신앙지도와 훈련을 위해 꾸준히 신학적 훈련을 쌓아갈 뿐 아니라, 정의평화생명에 대한 감수성(영성)과 꾸준한 지식의 심화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4년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최소한 2-3년을 공부해야 한다. 그 후에도 2년 이상 목사후보생으로서 수련(인턴) 과정을 훈련해야 비로소 목사가 된다. 약10여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법관이나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실제로 서양전통에서 법학, 의학, 그리고 신학의 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수련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신학적 인문학적 과목들을 지역주민들의 삶과 연결시키고 지역의 과제와 접목시킬 때, 지역의 작은교회 목회자들은 곧 지역의 풀뿌리 신학자(local theologian)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의 경우, 많은 인문학강좌에서 장자나 논어 또는 플라톤의 저서를 다루듯이 기독교성서역시 '인류의 고전'기⁷⁾로 바라보자고 제안하며 지역에서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다. 일회성을 지양한다는 원칙을 밝혀서 12주간 성서읽기를 지속하였다. 물론 이들이 곧바로 교회로 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적어도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 하나의 기대는 이들이 단지 성서에 대한 지식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12주간의 만남 속에서 삶, 역사, 정의평화 등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던 이들은 그 후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만들어 공부와 삶을 나누었다. 성서강좌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정의 평화 영성 자본주의 공동체 등에 대해 주민들과 다양한 책을 함께 읽으며 공부공동체를 이루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작은교회의 목회자는 삶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의 과제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갔다.

오래된 미래, 공동체

지역에서 초기에 가장 자주 공부했던 주제는 '공동체'였다. community는 communion, communism, communica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친교를 뜻하는 communion을 교회에서는 성찬례 또는 성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성찬의 자리란 각자의 먹을 것을 가져와서 다른 이들과 나누어 먹는 자리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말로만의 친교가 아니라 진정한 친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각 사람의 노동과 땀, 대지와 태양의 기운도 기억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하나님까지. 이러한 성찬의 자리가 교회공동체의 자리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먹는 모임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7) 안병무, 『역사와 해석』, 한국신학연구소, 1998.

는 서로의 노동과 고투를 나누는 것이고, 자신의 생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일종에 기초적 공산주의일수 있겠다. 공산주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 과정에서 왜곡되고 곡해되었다면, 큰 틀에서 공유주의나 꼬문주의로 대체되어도 좋다. 국가주의나 자본시장의 폭력적 지배에 한계상황을 만나는 우리시대는 국가와 자본에 저항하던 국가 이전, 자본 이전의 '오래된 미래'로 돌아가 지혜를 배우면서 국가 이후, 자본 이후를 꿈꾼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된 미래는 여전히 성서의 세계이다. 제국의 노예탈출과 새로운 공동체 형성, 이를 위한 희년법과 안식일법과 수많은 약자보호법들, 그리고 왕정의 출현과 당대의 국제 정세들 사이에는 히브리인들의 투쟁과 저항의 깊은 지혜가 숨어있다. 식민지 노동자의 아들인 예수는 로마제국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에 비견되는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으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몫을 내어놓아 함께 풍성히 먹는 기적을 일으키고(마14:13-21), 취업이 늦게 된 일용노동자도 제 몫의 품삯을 받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마20:1-16). 예수를 따르는 제자공동체들은 결국 사유재산제를 넘어서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룬다(행4:32-37).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강변하는 스캇 펙의 구분에 의하면, 우리는 흔히 공동체와 조직을 혼동하고 있다. 조직은 위계와 효율에 의해 운영된다. 반면에 공동체는 '개인차에 대한 존중, 정직한 의사소통, 합의과정의 헌신' 등이 요청된다.⁸⁾

둘러앉기, 안전한 공간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강력한 지도자가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줄 것에 대한 기대이다. 여기에 작은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때 교회를 참다운 공동체의 관계로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혜가 평화서클(peacemaking circle)의 전통이다.⁹⁾ 서클은 말 그대로 참여자가 모두 '원으로 둥글게 앉는 것'이다. 이러한 원이 평화서클의 출발이자 전부이다. 하지만 서클은 매우 깊은 지혜를 전해준다.

서클 모임은 서로의 관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한다. 참석자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원으로 둘러앉아 마주한다는 것은 모든 참가자가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한다. 이 자리에서 진행자는 조정과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할 뿐이며 일반적인 학습모임의 '지도자'와는 다르다. 따라서 한 두 사람의 일방적 언사나 가르침이 모임을 독점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지도(co-leaders)의 원리가 실현된다.

이것은 곧 참여자 전원이 공동의 공간에 책임을 저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진행과 지도를 한두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외부자로서 수동적 참여나 관찰자의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회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된다. 그러나 작은교회는 서클과 유사하여,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를 믿고 자신을

8) 스캇 펙, 김민예숙·김예자 역, 『평화만들기-위협과 분쟁의 시대, 진정한 공동체에 이르는 길』, 열음사, 2006.

9) 케이 프라니스·베리 스투어트·마크 웨지, 백두용 역,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평화형성서클』, KAP, 2016.

용기있고 정직하게 개방하는 가운데 서클의 지혜는 공동의 지혜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개방의 경험은 참여자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경험이 되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족)임을 경험하게 된다. 공동체는 물리적 실체라기보다는 경험이자 사건이다. 자기개방과 연결의 경험이 곧 성령의 사건이자 공동체 경험인 것이다. 이러한 자기개방은 언제나 공동체의 결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용기있고 정직하게 자신을 직시하고 개방한 본인의 자기발견으로 이어진다. 고전적 영성의 단계에서 일종의 조명(illumination)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의 형태는 동방교회의 전통적 삼위일체의 존재방식과도 연결된다. 성부 성자 성령 세분의 존재방식은 군주론적 위계 구조가 아니며 양태론이나 단일신론과도 차별된다. 삼위 하나님은 어느 특정 존재의 강화나 지배를 거부하고, 사랑과 자기개방 가운데 상호침투하고 상호내주하며 순환한다. 이처럼 원의 공간은 각자의 고유성 속에 상호의존하고 순환하는 신적 사랑으로 초대되는 거룩하고 신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는 실체론적 개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포스트휴먼시대에 상호침투적 혼종성과 횡단적 상호관계론, 즉 배치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공간과 존재의 망과 의미에 대한 의식을 열도록 돕는다.

자기개방과 공동체경험에는 '안전한 공간'의 형성이 전제된다. 즉, 서클은 안전한 공간을 이루는 평화의 자리여야 한다. 가면을 벗어도 공격받지 않는 자리, 온전히 자기자신이 되도록 격려 받는 자리, 정직하게 바라보도록 지지받는 자리가 안전한 공간이다. 스킷 펙에 의하면, "노련한 정신과의사들은 자신에게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치유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치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자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¹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이러한 안전한 공간이다. 교회는 안전한 공간인가? 교회는 공동체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도록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가? 내 안의 생명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얼마나 허용하는가?¹¹⁾

회의가 영성, 소통이 영성

불통의 아이콘, 이는 영성의 부재를 의미한다.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는 경청, 즉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이는 나와 다른 존재, 타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경청을 방해하는 장애를 관찰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기도수련의 과정이고 영성수련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잘 듣는 것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명료하고도 평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 역시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욕구는 무엇인지 관찰하는 과정이 수련의 과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욕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설교의 수련이고 정의평화 선교실천의 수련이고 복음전파의 수련과정도 또한 될 것이다.

잘 듣기, 잘 말하기의 종합예술은 회의에서 드러난다. 한 집단의 영적 상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회의의 자리이다. 이 자리는 다른 이의 말을 잘 듣고 내 안의 의도를 명료히 전달하며 서로의 의견을 합의해가는 과정이다. 물론 합의의 방향은 정의평화의 진리탐구에 대한 지향일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10) 스킷 펙, 위의 책, 2006.

11) 파커 파머, 홍윤주 역,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개정판, 한문화멀티미디어, 2012.

태도가 요청된다. 그래서 그 자리는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또한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자유롭고 즐거운 의사소통의 자리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서로 는 존재로 존중받으며 함께 정의평화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 확인만으로도 회의 의 자리는 하나님나라의 빛을 만나게 된다.

공공성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에는 공적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가치가 무엇인 지를 함께 찾아가는 자리, 즉 공론장을 공공성의 핵심으로 여기기도 한다.¹²⁾ 일방적인 진리규정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 그 자리는 정의와 평화의 기운이 가득한 자리이다. 그때 그 자리는 이기고 지는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여행의 자리로 변한다. 교회는 이와 같은 ‘대화와 소통의 공론장’으로의 훈련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부분이기도 하다.

갈등 전환과 회복적 정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한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교회는 이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 무똥러야 할 적으로 규정하기 쉽다. 늘 평화를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에서 갈등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든 비스리소도인이든, 교회도 예외 없이 갈등이 발생하는 자리라는 것을 안다.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갈등 전환의 첫 번째 과제이다. 현실에서는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지만 갈등상황을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갈등을 억압하는 태도는 거짓평화를 양산한다. 이는 유사 공동체(pseudo-community)의 특징이기도 하다.

갈등의 문제는 지역에서 매우 중대한 주제이다. 정의평화에 헌신하는 시민단체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복지단체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언제나 심각한 갈등상황을 내재하고 있다. 이때 갈등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인식하며 창조적으로 전환해주는 신뢰할만한 공공기관이 마을에 있다면 이는 마을 전체가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deus ex machina, 이 낱말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면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어 최고조에 달할 때, 이 모든 문제를 한 순간에 해결하고자 등장하는 ‘전능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줄 능력 있는 지도자를 요청한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의 배후에는 모든 문제를 대신 한순간에 해결해줄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오해가 숨어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모임에서 갈등은 당연히 발생한다. 갈등이 없는 모임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모임일 것이다. 따라서 갈등의 발생 자체를 문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갈등이 발생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갈등은 내재하고 있던 어떤 과제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갈등이 발생할 때, 그 갈등이 불러일으킨 내재된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하여 갈등 자체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갈등을 통해 주목된 과제를 해결해 나아가도록 갈등을 창조의 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갈등과 폭력의 문제에서 ‘전능’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주제는 ‘정의’이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정의는 범죄자/가해자 처벌로 이해된다. 즉, 법의 기준에 따라 죄를 범한 정도

12) 장명학,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2호, 2003.

만큼 범죄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주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응보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회복적 정의’는 범법보다 관계의 훼손에 주목한다.¹³⁾ 회복적 정의에서 범죄는 특정 개인과 국가의 법적 체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고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때 주목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상처를 아물게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와 마을이 모두 피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인식되며, 따라서 이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해결한다.

사회가 범죄 사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수위에 집중하는 사이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깨어진 관계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는 집중하지 못하여왔다. 이에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회복에 주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책임에는 가해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이웃, 마을도 포함된다.

최근 미국교정협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로부터 ‘사법제도의 혁명’이라고 평가받는 이 시도는 1990년대부터 북미,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유럽에서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자비, 회복에 기초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실현되어 왔다.

학교 공간은 심각한 경쟁과 폭력의 조직으로 기능해왔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내재화하고 있다. 사회의 문제가 곧 학교의 문제이고, 학교의 문제는 곧 이 사회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교사는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는 태도를 학생들에게 요구해왔다. 이때 청소년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하며 안전한 공간의 경험도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왕따, 우울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교공간에 대한 반성으로 몇몇 교육청에서 도입한 것이 국내 평화단체들과 협력하여 구성한 ‘회복적 생활교육’이다.¹⁴⁾ 이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생활교육, 학교교실의 안전한 공간 만들기, 자유로운 대화와 서클 의사소통 등을 연습하여, 평화감수성을 높이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때 교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변화된다.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는 무엇이며,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함께, 교실의 힘을 공유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중재하고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안학교 세우기

21세기 남한 청소년들이 정의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어디일까? 일반학교나 수많은 책들은 정의 평화가 옳고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다. 어느 학교나 가정에서도 불의를 택하고 폭력을 휘두르라고 말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말과 구호를 넘어서서 진정 청소년들이 몸과 삶으로 정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일반학교인가? 친구들 관계

13) 하워드 제어,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2012.

14) 로레인 스투츠만·쥬디 몰렛, 이재영·정용진 역,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KAP, 2011.

에서인가? 교회나 가정인가? 아니면 이것도 학원이 맡을 몫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마6:33)고 배우는 교회 청소년들은 이 가르침을 진정 자신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먼저 의와 평화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과 삶이 다른 교육과정 속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은 너무도 훌륭히 ‘숨겨진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을 발견한다. 숨겨진 커리큘럼이란 눈에 보이는 교육과정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태도가 실제의 커리큘럼으로 작동하면서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표면과 이면의 간극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체득하면서 어른이 되어간다.

이러한 괴리가 온당치 못함을 고민해온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가르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지역에서 대안학교 준비모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역할을 정의평화 전문가인 교회 목회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한 공부와 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방법적 공부보다 우선하는 것은 근원적 삶의 지향이다.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나라 운동에 전 생애를 헌신하는 목회자만큼 대안교육운동에 적합한 전문가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아니 교회학교가 곧 대안학교 아닌가. 물론 일반학교의 교육방식과 공간구성 속에서 성서 지식의 일방적 전달에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모색과 실험을 실천하는 교회학교라면 말이다.

대안교육의 공간은 정의평화의 내용을 가르치는 곳이자 정의평화를 몸으로 훈련하는 곳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훈련하는 과정 자체가 정의롭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반학교에서 주목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응보적 대응으로는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이 걸음의 토대에는 역사적 평화교회(메노나이트, 퀘이커 등)의 지혜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시민운동의 연대

수도권 변두리 지역의 시민사회 영역은 헌신적인 몇몇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과제와 인력 및 역량 부족으로, 긴급사안의 대응에만 내몰리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이는 정의평화운동의 풀뿌리 저변확대, 이를 위한 회원교육, 그리고 활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인문학적 이론 기초의 한계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단체들 간의 갈등이나 단체 내 갈등이 내재되어 있지만, 건강하게 표현하고 창조적으로 전환하는 힘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지역에서 정의평화 목회자, 갈등전환 전문가의 필요를 의미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고 한 부문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할 필요도 동시에 갖는다. 시민들의 삶 역시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공간의 부재, 비폭력 의사소통의 훈련 부재, 자기발견과 건강한 표현의 과정 등을 갖지 못한 한계를 공유한다. 이는 어떤 한계상황에서 갈등과 폭력의 악순환으로 드러나기 쉽다.

우리 지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을 몇몇 단체가 자치정부와 거버넌스를 이루어 진행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시민단체들은 기획과 실제 운영을 맡는다. 또한 각 단체들은 자신의 고유 영역의 전문 역량을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에서는 세계시민교육, YMCA는 생활정치, 그리고 교회는 청소년대안교육, 의사소통, 평화교

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을 시행하는 공간으로 교회 공간을 활용하여, 교회 공간 역시 시민사회의 공공선 형성에 기여하려고 노력한다. 가톨릭 사회교회의 공동선 개념처럼, 교회공간은 시민사회의 공유재산(commonwealth)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¹⁵⁾ 이때 교회는 사적 공간이 아닌 공공의 공간이 된다. 교회의 이러한 기여는 지역에서 정의감수성과 평화감수성의 개발을 돕는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평화 ‘영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이웃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기초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만나게 된다. 결국 지역의 작은교회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의 영성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2011년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제33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가족, 교구, 지역사회에 평화의 문화를 건설하는 주체이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전통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척당한 사람들을 보호 및 지원하며, 평화 건설과 갈등해결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들을 모든 평화활동에 참여시키고, 정의와 인권을 위한 비폭력 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하며, 교회와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바르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와 다른 종교와 지역사회 단체는 오락, 게임, 음악에 만연한 폭력을 비롯하여 폭력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폭력에 맞서야 한다. 모든 이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무장폭력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무기들이 금지되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거될 때, 그리고 가족 폭력이 중지되고 해결될 때 평화의 문화는 실현된다.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는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¹⁶⁾

또한 2012년 WCC중앙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2013년 부산총회에서 발표한 <WCC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확언>의 제73항에는 “지역교회는 선교의 전선이며 주요 대행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¹⁷⁾ 이는 하나님나라의 선교의 주체로서 지역교회(local church)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개체교회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개인구원과 개교회주의 및 교회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교회에게 부여된 선교과제는 교인들의 신앙과제이며 교인의 모임인 지역교회가 응답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는 목회자 중심, 선교사 중심 그리고 선언서 중심에서 교인대중의 공동체적 운동, 풀뿌리운동, 생활신앙¹⁸⁾으로 선교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존과 활동 사이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몰두해온 것은 어쩌면 목회자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권위를 구성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탈성장 시대에 목회자는 자신의 존재가치와 존엄을 어떻게 증명하고 지켜갈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용기 있는 실험, 수많은 기획공모와 도전정신은 신자유주의적 종교시장에 뛰어드는 벤처기업가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 자신의 존재가치를 필요와 효용에 둔다는 것은 자칫 행동주의의 위험에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두려움과 자기증명, 도전과 성공주의가 새로운 교회운동을 이끄는 배후의

15)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요 스승>, 1961.

16)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Ecumenical Declaration on Just Peace), 2011.

17) <WCC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확언- 함께 생명을 향하여 :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의 선교와 전도>, 2012.

18) 정종훈, “장공 김재준의 신학여정과 생활신앙의 기독교윤리”, 신학논단, vol.39, 2005.

힘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될 것임은 물론이다. 목회자가 먼저 누리는 정의평화 영성의 걸음, 그 과정에서 이어지는 신뢰와 지지의 공동체 관계 맺기, 그리고 현존과 활동의 조화는 여전히 작은교회 목회자에게 커다란 과제로 남는다.

<참고목록>

생명평화마당 편, 『한국적 작은교회론』, 대한기독교서회, 2017.

안병무, 『역사와 해석』, 한국신학연구소, 1998.

로레인 스투츠만, 주디 물렛, 이재영, 정용진 역,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KAP, 2011.

스캇 펙, 김민예숙, 김예자 역, 『평화만들기-위험과 분쟁의 시대, 진정한 공동체에 이르는 길』, 열음사, 2006.

아달베르트 에베르스, 장 루이 라빌, 자활정보센터 역,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 :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나눔의 집, 2008.

케이 프라니스, 베리 스튜어트, 마크 웨지, 백두용 역,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평화형성서클』, KAP, 2016.

파커 파머, 홍윤주 역,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개정판, 한문화멀티미디어, 2012.

하워드 제어,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2012.

장명학,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 제12집 제2호, 2003.

장윤재, “정의의 눈으로 보는 생명과 평화-제10차 WCC 부산총회의 주제에 대한 한 신학적 이해”, 2010.

정종훈, “장공 김재준의 신학여정과 생활신앙의 기독교윤리”, 신학논단, vol.39, 2005.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요 스승>, 1961.

<생명과 평화를 여는 2010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 2010.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Ecumenical Declaration on Just Peace), 2011.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 서울 세계대회 최종문서>, 연구문서 1, 1990.

<WCC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새로운 확언- 함께 생명을 향하여 :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의 선교와 전도>, 2012.